#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본격화'

**한마음선원, 10월 4일 고불식 봉행**
**2월 1일~5월 16일 아라아트센터서 탄신 100주년 기념전시로 첫 시작**
**대행 선사 수행, 전법 여정 담아내**
**대행선研·과학원 학술대회도 예정**
**"가르침 알리도록 정성 준비" 다짐**
**선사 법문 AI, 굿즈 공모전도 진행**

안양=신중일 기자

2027년은 한마음 주인공 관법으로 생활 속 마음수행의 가르침을 전한 선지식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탄신 100주년을 맞는 해다. 이를 기념해 대행 선사의 삶과 수행을 조명·선양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이 본격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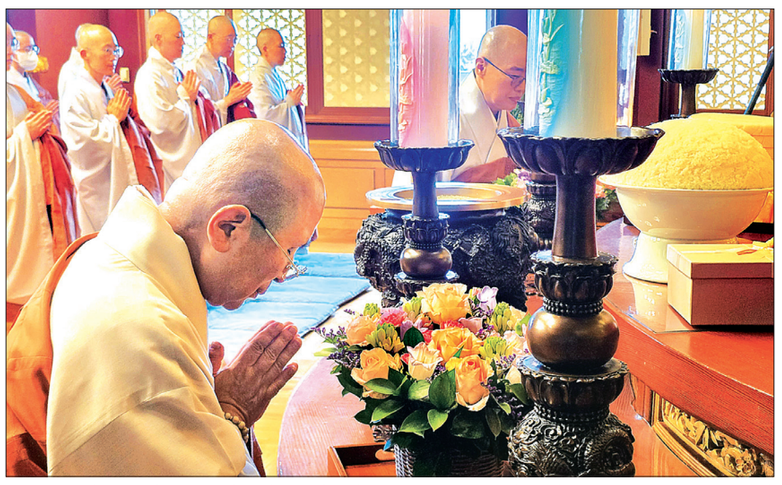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10월 4일 안양본원에서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 전시회 고불식'을 봉행하고 전시회를 비롯한 기념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법형제회 법회 이후 봉행된 고불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이 부처님 전에 헌화하며 기념사업의 시작을 부처님께 고했다. 또한 신도 대중들이 기념사업의 원만 성취를 발원하며 십시일반 모연한 정성금을 신현준 본원 신도회장이 신도를 대표해 부처님 전에 올렸다.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의 첫 시작을 알리는 기념전시회는 2027년 2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서울 인사아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대행 선사의 생애와 수행, 전법의 여정을 돌아보는 동시에 한마음의 가르침을 오늘의 시각으로 새롭게 체험하는 장으로 꾸려진다. 선사의 전법 영상과 미디어아트, 공간 연출 등 현대 전시기술을 활용해 관람객들이 오감을 통해 선사의 가르침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전시회는 신도 대중의 참여 형식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한다. 한마음선원은 전시에 활용될 대행 선사 법문 기반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신도 대상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신도 설문 응답은 AI 학습자료로 되며, 이를 통해 대행 선사의 법문을 바탕으로 생활 속 수행의 고민과 어려움을 제시하는 AI를 전시에 선보일 예정이다.


한마음선원은 10월 4일 안양본원에서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 전시회 고불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이사장 혜수 스님이 헌화하며 전시회 개최를 부처님께 고하는 모습.

관람 후에도 전시의 여운을 간직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굿즈를 제작하기 위한 굿즈 공모전도 진행된다. 10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공모전은 실물 굿즈와 디자인 제안서 형식으로 응모할 수 있다. 실물은 본원 종무소로, 디자인 제안서는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학술과 공연 등의 분야에서도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이 진행된다. 대행선연구회는 2027년 6월 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1회 학술대회를 열고 대행 선사의 삶과 사상, 한마음선원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조명한다.

한마음과학원은 2027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대행 선사의 한마음 사상 : 과학과 정신 발전'을 주제로 2027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선원 승단과 국내외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학술대회는 대행 선사의 한마음 사상을 현대 과학 및 정신문화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할 예정이다.


신현준 본원 신도회장이 전시회의 원만회향을 위해 십시일반 마련한 정성금을 부처님 전에 올리고 있다.

2027년 11월 21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린다.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 음악회의 1부에서는 대행 선사의 삶과 수행, 깨달음의 여정을 무대예술로 새롭게 표현한 창작 뮤지컬 '한마음의 길'이 선보일 예정이라 기대를 모은다.

2부에서는 국내외 한마음 가족이 함께하는 대규모 한마음 음악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도록 선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전시회를 준비했음을 전하며 대중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혜수 스님은 "오늘 사부대중이 함께 부처님 전에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 전시회 개최를 고했다"며 "대행 선사께서 열반하신 후에도 항상 저희 곁에 계심을 믿기에 흐트러짐 없이 열심히 정진해 나가고 있다. 큰스님 전에 탄신 100주년 전시회를 준비하고 열심히 펼쳐 보이겠다는 약속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선사께서 뿌려주신 새싹들이 자라서 꽃을 피우며 나무로 성장하고 있기에 탄신 100주년 전시회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사부대중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마음을 모아서 전시회를 하고자 한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마음선원 사부대중은 신현준 본원 신도회장이 대표로 봉독한 발원문을 통해 기념사업 원만 회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했다.

사부대중은 발원문에서 "대행 선사께서 일러주신 생명존중과 모든 존재들은 본해 한 뿌리에 연결돼 공생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신 오공의 도리가 온 세상에 두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 울산지원에 울려 퍼진 '한마음' 선율

**탄신 99주년 기념 산사문화축제**
**10월 3일, 7000여 사부대중 참석**
**혜수 스님 "한마음 이어지는 자리"**
**1부 청소년 문화공연 · 고민상담도**
**혜안 스님 "한 생각 돌리는 수행"**

대행 선사 탄신 99주년을 맞아 7000여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주인공'과 '한마음'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평화의 선율을 나눴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 스님)은 10월 3일 울산지원 대법당 특설무대에서 7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대행 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는 산사문화축제 '한마음으로 그리는 평화의 선율'을 개최했다.

청법가에 이어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으며, 한마음선원 본원 합창단과 진주지원 합창단이 음성공양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마음선원 신도들은 큰스님의 가르침을 법으로 삼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은 음악과 노래를 통해 위로와 치유를 얻는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서로의 다름을 넘어 한마음으로 어우러져 부처님의 자비심 속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맺어진 소중한 인연들이 음악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일상의 근심을 내려놓으며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평화의 선율 속에서 한마음의 의미를 함께 느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토사 덕진 스님은 축사를 통해 "마음속 의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한 생각을 한마음으로 모아갈 때 마음이 밝아지고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이 1부 청소년문화마당에서 청소년들이 고민을 상담해 주고 있다.

천주현 신도회장은 "정성을 다해 준비한 행사인 만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사문화축제는 가수 신대양과 수근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박수진 아나운서와 가수 김용필의 사회로 진행됐다. 가수 진미령, 추혁진, 정혜린, 김용필, 마이진, 이찬원 등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대중과 호흡하며 산사의 가을밤을 음악으로 물들였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10월 3일 대법당 특설무대에서 대행 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는 산사문화축제 '한마음으로 그리는 평화의 선율'을 개최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1부 행사로 청소년문화한마당 '내 안의 주인공을 찾는 여행'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의 끼와 재능을 펼치는 문화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인 '마음굴림-내 안의 주인공을 찾는 여행'이 진행됐다. '마음굴림'은 청소년들이 평소 부모나 친구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고민과 생각을 메모로 남기면, 박수진 아나운서가 질문하고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이 답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다.

청소년들은 사춘기에 찾아오는 짜증과 불안, 부모·친구 사이의 갈등, 시험과 학업에 대한 부담, 미래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혜안 스님은 이 같은 고민을 대행 선사의 '주인공' 가르침과 한마음선원의 마음공부에 연결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한 생각을 돌리는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한 생각을 돌리고 내 안의 주인공을 믿으며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마음공부"라며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들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생활 속에서 수행 정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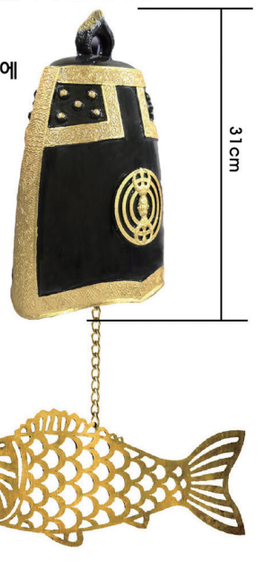

백제 풍탁(특대)

백제 미륵사지 풍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소리가 좋다! 아름답다! 튼튼하다!




성종사에서 제작하여, 소리가 좋은 것은 기본이며, 아름답고, 내구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입방법 : 네이버에서 미륵사지 풍탁으로 검색)

1. 튼튼한 스텐레스 소재의 링과 굵고 튼튼한 황동 체인, 황동판으로 제작되어 강한 바람에도 쉽게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제작되었습니다.
2. 풍경의 소음 때문에 풍경 설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따라 요청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
3. 바람판(물고기판)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연꽃, 구름, 종기 등 다양한 형태로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
4. 표면의 종기 부분을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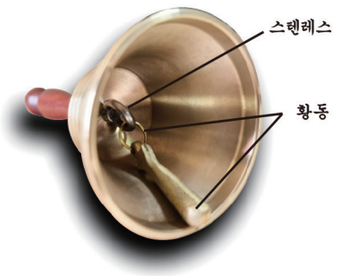

규격
- 종 : 19×14×31cm
- 바람판 : 30×13cm
- 가격: 120만원(개금 150만원)

조계종 화엄사, 광제사, 직지사, 석굴암, 천태종 구인사, 월명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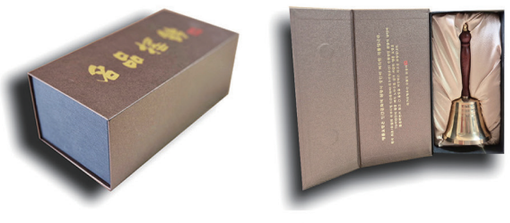
성종사, 소리 좋고 튼튼한 명품 요령 출시!
사부대중의 요청에 따라 성종사에서 범종용 합금으로 소리 좋고 튼튼한 요령을 출시하였습니다. (구입방법 : 네이버에서 소리 좋은 요령으로 검색)



규격 小 : 74×74×180mm / 198,000원
大 : 88×88×200mm / 242,000원




오래 사용하여도 끊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제작된 추와 링



선물용으로 적합한 최고급 포장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